

삼성MD, 5.5세대 AM-OLED 가족축제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사장 조수인)는 세계 최대규모인 5.5세대 AM-OLED(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 생산 라인 준공을 기념해 6월16일 충남 아산 탕정면 삼성디스플레이시티에서 임직원과 가족 3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퍼스트 원(First One) 페스티벌을 개최했다고 6월17일 발표했다.



합창대회에는 8개팀 250명이 참가했고, SMD 스타킹에서는 10대1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본선에 진출한 임직원들이 춤과 노래 실력을 겨루었다.

임직원 자녀를 위해 도자기·야광팔찌 만들기, 페이스페인팅 등 행사를 마련했고, 교육 전문가 조선미 박사를 초청해 <아이의 잠재력을 키워주는 대화법> 주제의 특강도

했다.

이밖에 플렉서블, 투명, 3D 등 미래형 AM-OLED로 꾸며진 홍보관도 선보였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06/17>